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의 도심재생 효과

임희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편익과 경제적 효과

이영성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전문가 의견 및 설문 조사:

도심명소로서 청계천의 미래상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승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전문가 의견 및 설문 조사: 도심명소로서 청계천의 미래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박희석 부연구위원 · hspark@sdi.re.kr

이승지 연구원 · seungji@sdi.re.kr

본 조사는 청계천 준공 (2005년 10월 1일)을 앞두고 도심의 명소로서 청계천이 가지게 될 위상과 미래상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함

본 조사는 세 부분으로 「청계천복원사업 개요 및 관광·문화 프로그램」,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관광/도시/건축 학과 교수 및 관련 연구기관 연구직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의 형태로 실시하였음

1. 청계천 복원사업의 개요 및 관광·문화 프로그램

○ 청계천 복원사업의 개요

<표1> 청계천 복원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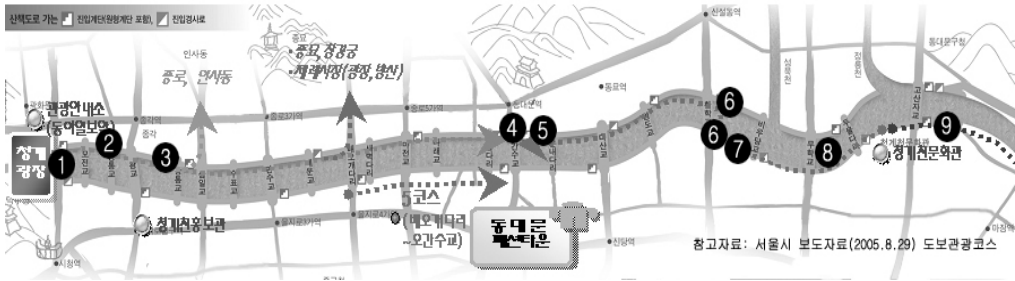
사업기간	2003.7.1 ~ 2005.9.30
사업내용	태평로~신답철교 5.8km 구간 하천 복원 및 관련 시설 조성 등
주요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복개도로 철거 • 구조물 보강, 상수도 및 차집관거(遮漕管渠) 이설 • 양안도로 조성 및 교량건설 • 수로 굴착, 유지용수 및 호안(護岸) 정비 • 조경, 야간경관조명
사업비	총 3,577억원 (공사비 3,467억원+감리비 72억원+역사유적 복원비 35억)

자료: 청계천 복원추진 위원회(<http://cheonggyecheon.seoul.go.kr>)

○ 청계천 주요시설물 및 관광·문화 프로그램

청계천 주요시설물	
문화공간 및 조경시설	청계광장, 정초반자도, 문화의 벽, 청계천 빨래터, 소망의 벽, 존치교각, 청계천 문화관
지역상징물	창녕군-갈대숲, 충주시-사과나무, 상주시-감나무, 천안시-능수버들, 영주시-산철쭉, 포천시-구절초, 담양군-대나무
역사유적	광통교, 광통교터, 수표교터, 하랑교터, 효경교터, 오간수문터
다리 (22개소)	모전교, 광통교, 광고, 장동교, 삼일교, 수표교, 관수교, 세운교, 오개다리, 새벽다리, 마전교, 나래교, 버들다리, 오간수교, 맑은내다리, 다산교, 영도교, 황학교, 비우당교, 무학교, 두물다리, 고산자교
관광·문화 프로그램	
청계천 축제	2005년 10월 1일 청계천 복원을 축하하는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는 '축하음악회', '청계천 민속놀이 행사'에서부터 마라톤과 걷기대회 등 시민참여 행사, 주변 상가들의 빅세일 행사 등으로 계획
도보관광코스	청계천의 역사유적지와 8경을 연계하는 청계천 도보 관광코스 운영
시티투어버스	기존의 시티투어버스의 고궁코스를 변경함으로써 청계천과 주변 고궁, 인사동 등 인기 명소를 연계
청계천 거리예술공연	청계천의 22개 다리 위에서 버스커(Busker)라고 불리는 거리예술가들의 공연
전통문화재현	수표교 다리밧기, 편싸움, 연등행사 등의 전통문화 재현
청계천 시민 걷기대회	2002년 5월 청계천복원 시작을 알리는 "청계천 고가도로 걷기대회" 이후 '청계천시민걷기대회'를 정례화하여 청계천 명소화에 일익

○ 청계천 주요 관광자원



① 청계광장



② 광통교



③ 반차도



④ 문화의 벽



⑤ 청계빨래터



⑥ 소망의 벽



⑦ 리듬벽천



⑧ 존치교각 및 터널분수



⑨ 버들습지

〈표3〉 청계천 주요 관광자원 (도보관광 8대 명소)

①	청계광장	청계천 시점부인 태평로 입구에 조성된 2,100여평 규모의 광장으로 청계미니어처, 프로그램분수, 만남과 화합을 상징하는 8도석 등이 설치. 광장 바닥과 각 조형물에는 각양각색의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설치돼 밤이 되면 빛과 물이 어우러지는 경관 연출
②	광통교	1410년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능인 정릉 터의 돌을 가져와 축조된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계천의 석교로 원래 위치보다 상류로 150여m 이전하여 원형으로 복원된 다리. 서울시는 복원 과정에서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와 창덕궁·탑골공원에 흩어져 있던 부분을 찾아 100% 활용했으며, 나머지 유실된 부분은 원래 광통교 축조 당시와 비슷한 석재 사용
③	반차도	조선시대 정조가 1795년 사도세자의 회갑을 기념해 모친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현재 수원)에 행차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 가로, 세로 30cm의 도자기질 타일 5,120장에 재현한 것으로 길이 192m에 이르며, 광교와 삼일교 사이에 위치
④	문화의 벽	현대 미술가 5인의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오간수문 상류에 설치되어 있고 석기조합도, 백자도, 자기질 점토 등을 재료로 20~40cm 크기의 도판들을 만든 뒤 이를 벽화로 재구성한 가로 10m, 세로 2.5m 크기의 작품
⑤	청계빨래터	청계천이 이전 아낙네들에게는 빨래터, 아이들에게는 놀이터로 활용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옛 청계천의 빨래터 풍경을 현대식으로 재연. 다산교와 영동교 사이에 조성
⑥	소망의 벽	20,000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가로, 세로 10cm의 도자기질 타일에 각자의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황학교와 비우당교 사이의 양쪽 벽에 50cm씩 설치
⑦	리듬벽천	높이 5m, 폭 20m 대리석 벽 상단에서 물이 넘쳐 대리석 벽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고안된 형태로, 벽에는 까만 돌들을 박아 물고기가 청계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 표현. 밤에는 조명을 비춰 물이 리듬에 맞춰 떨어지는 듯한 모습 연출. 황학교와 비우당교 사이 위치
⑧	존치교각 및 터널분수	청계고가도로의 일부를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여 청계천 복원의 역사적 상징성을 부여하고 점경물로서의 기능을 수행. 터널분수는 높이 5m, 폭 50m 구간 벽에 설치된 42개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 산책로를 넘어 포물선을 그리며 청계천 본류로 떨어지게 설계
⑨	버들습지	청계천 전체 구간 중 가장 자연적이고 생태적인 공간으로 버드나무와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생물들의 서식 공간으로 조성. 곳곳에 소형 LED 조명이 설치되어 밤이면 흔들리는 갈대와 함께 천변풍경 감상지로 조성

2.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 김 상 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정 중 헌 (조선일보 논설위원)
최 승 담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원장)
권 영 규 (서울시 문화국장)

○ 청계천 준공이 서울시 관광문화산업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태**: 우선 서울의 관광자원적 매력도를 크게 올린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서울 관광은 내외국인 모두가 모토라이즈드 앤츠(motorized ants)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박제된 형태로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청계천 준공을 통해 광화문 - 서울광장 - 청계천 - 동대문 - 황학동을 잇는 수변문화복합통로를 쾌적하게 도보로 즐길 수 있게 해준 우리 관광사에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해도 좋겠다. 또 우리가 관광정책을 고민할 때 이런 분류방식도 생각해 본다. 즉 1만불 시대의 관광과 2만불, 3만불 시대의 관광은 어떻게 다른가하고 말이다. 1만불 시대의 관광이 뭔가 보여주려고 애쓴다면 2~3만불 시대의 관광은 아름답고 편하고 격조 있는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단순히 관광꺼리로서 뿐 아니라 여기 와서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을 들게 하는 게 관건이라는 결론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청계천 준공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청계천 준공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거의 망가지거나 황폐화된 것을 체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성공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앞으로 많은 주변국들의 관광전문가들이 몰려오고 우리의 사례를 여러 나라에 알려 또 하나의 한류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중헌**: 서울의 관광문화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폭제가 되리라고 본다. 그간 서울의 관광문화산업은 동적이기보다 정적인 측면이 컸다. 고궁과 박물관 등 정적인 관광에는 한계가 있다. 도심에 물줄기가 가로지르는 청계천 복원은 서울 관광을 동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중심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외국인들에게는 환경친화적인 도시 개선의 모델로, 내국인들에게는 서울의 새명소로 떠올라 흥미의 대상이 될 여

지가 충분하다. 문제는 청계천을 축으로 동선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이다. 낮에는 고궁과 가회동 한옥촌, 인사동 문화거리, 동대문 패션타운과 먹거리시장, 황학동 만물시장을 연계시키면 재미있는 볼거리와 관광객의 흥미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밤에는 청계천의 야경과 동대문 패션타운, 주변의 문화공간을 연결시키면 또 다른 볼거리가 조성된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서울 관광문화산업을 청계천과 연관시켜 새로 설계하고 이에 맞는 먹거리와 이미지 상품을 개발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한다면 서울의 이미지를 새롭게 알리는 호기를 맞게 될 것이다. ▶**최승담**: 청계천 복원은 서울시 관광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선, 도심의 어메니티로서 새롭게 조성되는 친수공간은 관광목적지로서 긍정적인 서울의 이미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청계천은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서울시의 관광 유인력을 증대시켜준다. 잘못된 복개 후 재개발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가고 있다는 상징성 자체가 관광명소로서의 매력을 배가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새롭게 조성되는 여가공간으로서 수변 오픈스페이스는 주변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준다. 도심지역 커뮤니티의 경우 폐쇄된 형태의 여가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야외 여가 기회의 확충으로 여가의 격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권영규**: 청계천 복원은 사회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특별히 문화관광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광통교의 원형 복원과 수표교 다리밟기·연등행사 등 전통문화 재현을 통해 사대문안의 문화유적과 연계되어 단절되었던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 회복의 계기 되었다는 것과 청계천 복원으로 4대문 안에 수변공간이 마련됨으로써 고궁 등 역사·문화자원과 함께 서울의 관광매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지난 6월에 개장된 서울숲과 함께 사대문안 역사문화벨트와 한강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울 문화관광벨트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 향후 새로운 도심명소로 자기 잡기 위해 청계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태**: 우선 단순한 서울시내의 건축적 구조 변화정도로 이해되게 놔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파리의 세느강이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듯이 이제 속도를 더해가는 우리 한류의 중심인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으로 세계에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성공적인 지천인 양재천과 중랑천 등

을 묶어서 하나의 상품화로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일반적인 홍보뿐 아니라 여행업계의 지원도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주간 활용 뿐 아니라 조명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야간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뭉니 뭉니 해도 야간이 주는 로맨틱함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은 문화와 축제의 장으로 우리문화 역량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수준 높고 매끄럽게 펼쳐질 수 있도록 섬세한 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청계천에 펼쳐질 8경 8품 8미도 너무 궁급하고 자못 기대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보겠다. 이런 것들도 최고 마케팅에서 활용되는 티저광고방식처럼 깜짝 놀라면서도 상쾌한 기대와 이미지가 유도 되는 등의 시대적 흐름을 잘 타는게 중요할 것이다. ▶정중헌: 무엇보다 테마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파리의 세느강은 유람선과 아름다운 다리, 저녁무렵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하다. 청계천을 서울의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이미지메이킹이 필요하다. 환경보다는 문화예술에 의미를 두어 시민 공모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다음은 사계절 논스톱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주중, 주말, 휴일 그리고 낮과 밤에 맞는 문화플랜을 짜되 행사위주가 아니라 물 흐르듯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너무 잡다하기 보다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지 않게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승담: 청계천의 관광적 기능 제고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으고 협력할 때이다. 먼저, 청계천은 깨끗한 물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흐르는 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히 차창 밖으로 스쳐지나가는 관광명소가 아니라 관광객을 걷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계천내 각종 공연 및 프로그램의 격은 일정수준 유지되어야 하는데, 서울 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아티스트의 오디션을 통한 인증절차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세계적인 청계천 축제의 개발을 통하여 문화, 환경 및 관광도시로서의 서울이 보다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사실 대도시권에서 문화적, 역사적, 환경적인 이야기 거리를 가진 축제는 흔하지 않다. 성공의 관건은 청계천 축제의 내용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만드느냐에 있다.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아시아권에서 일고 있는 한류와 접목시켰을 때 축제의 소구력은 커질 것이 분명하다. ▶권영규: 청계천에는 역사와 과거의 이미지, 문화와 도시적 이미지, 자연적·미래적 이미지를 담아 복원된 청계천의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룬 22개 다리가 건설되었으며 청계광장, 광통교, 수표교 등 청계천 8경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청계광장 분수와 폭포, 비우당 터널분수, 황학 리듬벽천, 정조대왕 능행반차도 도자벽화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고 야간 조명시설

을 완비하였다. 10월부터는 거리예술가(busker)에 의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활동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청계천 관광의 키워드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청계천의 변화된 모습을 벽화를 통하여 또한 문화유산 해설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전달하게 될 것이다. 시티투어버스가 청계천을 경유하게 되고, 순환버스도 운행되어 관광객의 편리한 접근을 도울 것이다. 또한, 앞으로 청계천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는 테마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고궁인사동북촌송례문 등을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 동대문쇼펍타운명동남대문시장 등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쇼핑관광, 청계천과 서울숲한강으로 이어지는 생태관광, 그리고, 광화문-송례문 등 도심 중심가를 연결하는 야간관광 등이 될 수 있겠다.

○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및 정책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디 마케팅이란 개념이다. 서울시의 역할 및 정책들은 사람이 많이 오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다. 아무래도 개장 초기 상당한 인파가 몰리면 쾌적성은 물론 자원의 훼손도 우려된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투입된 청계천의 자원적 가치가 지속가능하게 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연공원 등에 많은 선행적 해결방식이 있다. 이를 서울시가 참조했으면 좋겠다. 또한 관리적 차원에서 본다면 서울시에 의한 직접적 관리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언제나 모든 곳에 공공적 관리가 미치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따라서 관리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즉 서울시의 일정한 기획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시민 스스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그렇지 못한 행태에 시민들이 감시하고 나서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더욱 적극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 상권에 관계된 분들일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청계천의 준공이 마치 우리 사회에 막혀있었던 소통의 부채와 난맥을 일순간에 흘려보내는 상징성을 보게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운영과 관리면에서도 이제까지 보여온 관료적이라는 틀을 이번에 씻어버리고 청계천의 준공의 의미를 크게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중현**: 노파심 같지만 개막 초기에 밀려들 인파를 통제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초기에 질서가 무너지면 이미지를 끌어올리기가 어렵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기획·운영과 관리 파트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관리는 말 그대로 잡상인들을 단속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는 일과 더러워진 곳을 수시로 청소하는 무한서비스를 하는 일이다. 기획·운영 파트는

앞에 제시했듯이 청계천의 사계와 밤낮의 문화예술 관광 프로그램을 짜고 수준 높게 이를 기획 시행하는 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쉽 없이 가꾸고 치우되 보이지 않게, 무시로 이벤트가 열리지만 자연스럽게 주변 문화를 가꾸는 아이디어와 실천이 핵심이다. 끝으로 일부 재시공을 해서라도 천변위의 도보를 확보하여 시민들이 걷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감독하되 서울시의 역할이나 정책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정책의 방향은 규제는 최소화하되 언제 걸어도 정취가 느껴지고 어느 때이건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 명소가 되도록 이끄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승담**: 청계천의 관리, 운영은 복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잘 조성된 조경시설물과 깨끗하게 흐르는 물이 개발 후 훼손되고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청계천의 품격을 유지시키고, 우리의 공공질서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서울시는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직접 담당할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수혜자가 되는 지역주민과 주변 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 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필요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결과에 따라 구역별, 업체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참여도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권영규**: 청계천을 도심 자연하천으로 또한 관광명소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운영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민·관의 유기적인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될 것이다. 이미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2005.9.13 시의회 의결)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맡을 전담조직을 만들어 복원 후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청계천 이용에 따른 질서와 환경보전,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관리체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민들 스스로 질서유지와 시설물을 보호, 역사문화에 대한 설명, 생태환경교실 운영, 외국인에 대한 통역 등 다양한 자원 봉사활동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다. 현재 아름다운 청계천가꾸기 시민모임인 “청사랑”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의 8,300여명이 이르고 있으며 지원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 모임이 자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3.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대상 : 관광 / 도시 / 건축 학과 교수 및
관련 연구 기관 연구 직 100명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http://www.research.joongang.com/survey.php?act=v&id=05-11-508>)

기간 : 9월 20일 ~ 9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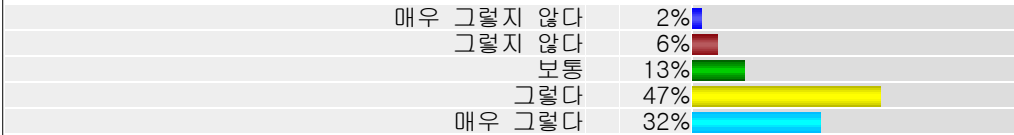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도심의 관광명소로서 청계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 대부분이 청계천의 미래상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계천은 도심재생의 일환으로 청계천 주변의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향후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복원된 청계천이 관광명소로서 갖추어야 할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92%(응답중 보통포함),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85%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도시민의 휴식처 및 관광명소 형성이라는 관점에서의 인프라구축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향후 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도시민의 환경친화적인 쉼터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에 대해서는 87%, 도심의 경제 활성화 촉진 여부에 대해서는 89%가 긍정적인 기대치를 보여주었다. 국제경쟁력을 갖는 관광명소로서의 기대치는 75%로 청계천이 서울시민의 관광지 및 휴식처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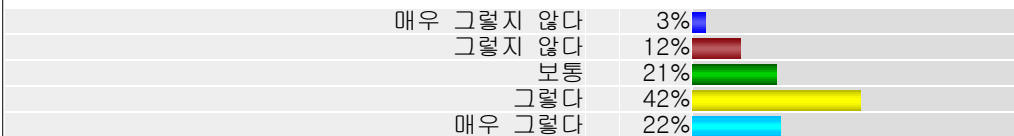
본 설문에서 청계천 문화관광산업이 향후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프로그램(59%)이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됨으로써 전문가 의견조사와 같이 청계천 관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준공일자에 맞추어 계획된 여러 가지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이 일시적인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청계천만의 고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관광 문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응답자 수 : 100

1. 복원된 청계천의 물리적인 환경요소(하천 및 자연문화유산 복원, 광장 및 산책로 조성 등)가 서울시의 관광명소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관광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도보 관광 코스, 거리예술공연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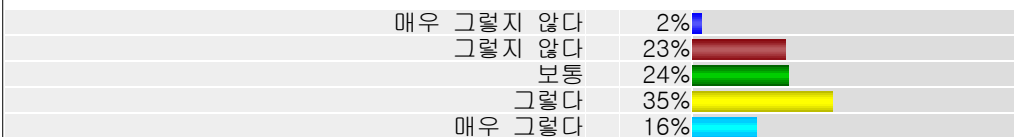
3. 청계천이 도시민의 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청계천의 관광문화산업이 서울시 및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청계천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관광명소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청계천 관광문화산업의 성공을 위하여 다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